

발굴

노윤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 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고고학이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된 것은 20세기 초 반이지만 19세기의 많은 모험가와 골동품 수집가들이 그들의 독특한 방법과 수단으로 오늘날 학문으로서의 고고학 토대를 이루는 데 큰 업적을 남겼음을 잊을 수 없다. 그 대표적 인물들이 고대 이집트의 아부심벨(Abu Simbel) 신전을 발견한 영국의 벨조니(Giovanni Belzoni, 1778~1823), 웅장하고 장대한 대발견에 대한 강한 열망과 집착력을 가졌던 독일의 슐리만(Heinrich Schliemann, 1822~1890), 이집트 상형 문자 해석에 일생을 바친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J. F. Champollion, 1790~1832)이다.

샹폴리옹은 1820년 초에 로제타 스톤(The Rosetta Stone)의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여 당시 최고의 학문적 미스터리를 해결한 신동이었으며 그의 로제타 스톤 해독으로 비로소 이집트학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고고학의 아버지’ 샹폴리옹

샹폴리옹은 프랑스 서북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는데 매우 조숙한 아이였고 외국어 공부를 좋아해 이탈리아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아라비아어, 콥트어까지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1809년 19세의 청소년기에 그로노블대학(The Lyceum of Grenoble)의 조교로 임명되어 학구 생활에 전념하게 되었다.

1799년 나폴레옹 원정군이 알렉산드리아 동쪽 60km 떨어진 「로제타」마을에서 요새를 구축할 때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시대의 비석을 발견했다. 이 비석(로제타 스톤)은 1801년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군에 빼앗겨 현재 대영박물관에 보관중인데 길이 1.25m, 너비 0.7m, 두께 0.28m의 단단하고 곁이 고운 현무암에 세 가지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비문의 첫 부분은 14행으로 이집트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고, 둘째 부분은 32행으로 민중 문자가, 셋째 부분은 52행으로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셋째 부분의 그리스 문자를 번역하니 BC 196년 이집트 신관(神官)들이 프톨레미 왕의 1주기 기념식에서 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글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집트 상형 문자와 민중 문자의 해독을 위해 20여년 노력했으나 성공할 수 없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해독은 샹폴리옹에게 위촉되었다. 그는 상형문자를 뜻글자(표의 문자)로 판단하고 해독에 전념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상형 문자가 소리글자(표음 문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독에 노력한 결과 이집트 상형 문자가 소리글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1821년 샹폴리옹은 민중 문자가 고대의 상형 문자가 단순화된 후기의 형식을 띄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각각의 상형 문자가 반드시 각각의 단어를 의미하지 않고 특정한 소리나 소리 군을 나타내는 발음 부분을 갖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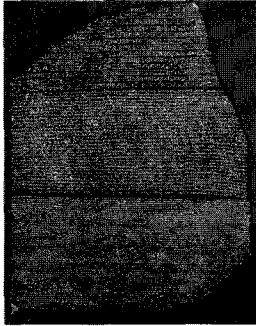
그는 계속된 연구로 로제타 스톤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벨조니가 아스완 근처의 나일 강에 위치한 파일리 섬에서 발견한 오벨리스크(Obelisk)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카르나크 신전에서는 「알렉산더」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샹폴리옹은 각각 소리를 가진 12개의 상형 문자 알파벳을 만들었고 이집트어로 쓰인 모든 그리스, 로마 이름에 적용할 수 있었다.

1822년 샹폴리옹은 로제타 스톤보다 1500년이나 더 오래된 아부심벨 신전에 새겨진 글을 해독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던 중에 로제타 스톤의 암호 문자를 해독한 것들과 일치됨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의 집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샹폴리옹은 파리학사원(The Academy of Inscriptions)에서 그의 성과를 발표했고 2년 뒤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체계』(A Summary of the Hieroglyphic System of the Ancient Egyptians)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그는 일약 유명 인사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이 후 그의 업적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

샹폴리옹은 1820년 초에 로제타 스톤(The Rosetta Stone)의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여 당시 최고의 학문적 미스터리를 해결한 신동이었으며 그의 로제타 스톤 해독으로 비로소 이집트학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로제타 스톤

지금 우리 원자력 기관(산-학-연)의 시급한 당면 과제의 하나는 인재 발굴이다.

지난 40여 년간 발전소 건설과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우리 원자력은 현재의 기술 개발 수준에 안주할 수 없으며 한 단계 높은 고지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 플랜트의 해외 수출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재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은 인재 발굴이 아니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은 상형 문자 해석의 토대가 되었다.

1826년 샹폴리옹은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이집트 전시실의 초대 큐레이터가 되었고, 1831년에는 파리의 프랑스대학에서 고고학 교수가 되었지만 다음 해인 1832년 뇌졸중으로 42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가 정리한 고대 이집트어 문법과 사전은 그의 사후인 1836년과 1841년 각각 출간되었다. 샹폴리옹! 그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함으로써 과학적으로 고고학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었고 이집트학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신동으로 '19세기 고고학의 아버지'란 호칭을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다.

원자력계의 시급한 당면 과제는 인재 발굴

지금 우리 원자력 기관(산-학-연)의 시급한 당면 과제의 하나는 인재 발굴이다. 인재 발굴은 인재 양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인재 양성은 전문학교나 대학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에 필요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 훈련(OJT)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OJT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인력은 관행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업무(On-going Business)를 주어진 절차에 따라 또는 감독자나 상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씩 수행해 갈 수 있다. 원자력 기관은 이와 같은 인재 양성 방법에 의해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 업무만을 처리하는 조직에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40여 년간 발전소 건설과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우리 원자력은 현재의 기술 개발 수준에 안주할 수 없으며 한 단계 높은 고지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 플랜트의 해외 수출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재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은 인재 발굴이 아니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원자력을 이용한 과열증기 생산을 생각해 본다. 전기 출력 1000MW급의 경수로로는 열효율이 33% 정도로 그 열출력은 3000MW가 된다. 이 경수로의 증기조건을 과열 증기로 개선한다면 열효율은 40%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고 따라서 전기 출력은 1200MW로 200MW를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원자력의 연료비가 극히 낮아 증기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최근의 연료비 급등현상은 경수로의 증기 조건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유능한 인재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